東亞日報
朝刊
本紙朝夕合十面
發行所 東亞日報社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代表電話 光化門 一九〇〇

社說

軍縮과 太平洋問題의 展望
岡田內閣은 如何

一

日本은 一九三五年 軍縮會議를 앞두고 一、日本國防의 安全感을 充足할것 二、國防自主權、軍備平等權의 根本的原則을 確認케할것 三、列國軍備의 現狀에 鑑하야 公正妥當한 實質的軍縮을 行할것 等의 根本方針을 決定하고 方今 外務、海軍 兩當局은 鋭意 그 細目的方面의 調査에 努力中이라는 것이 事實이다. 이같은 要求로서 果然 明年 軍縮會議에 臨할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야 거의 疑問의 餘地가 없는 問題라 하겠다. 果然 日本의 今日 處地로 보아서는 國防上 不安과 그 危懼가 增大된 것도 事實이어서 이方針을 세우게 된 不得已한 事情이 있을 것도 같으나 日本의 國防安全을 爲한 軍縮會議가 아니며 또 日本 優越的 比率을 주어야 될 하는 그것도 아닌 것이라면 軍縮會議의 前途로 進展은 極히 期待키 困難한 것이라고 하여야 되겠다.

二

日本의 이와 같은 態度에 對하야 優勢의 比率을 保有하고 있는 英米兩國은 條約의 最大限度의 大艦巨砲主義의 實施하는 同時에 大規模的 建艦計劃을 세워 日本의 軍縮脫退를 牽制하고저 하는 威脅的 態度를 取하고 있으며 또 會議決裂後 自國의 期先的 優勢的 關係를 꾀하고 있는 터이니 日本으로서 軍縮脫退를 遲二無二、斷行키 어려운 까닭도 여기에 그 一端이 있다.

日本을 빼고는 軍縮會議의 意義가 없는 것이며 日本이 빠지고는 軍縮會議도 不可能한 結果를 짓게 되리라는 것이 一般의 觀測이며 日本이 國防自由를 要求하야 萬若 軍縮會議를 脫退한다면 會議決裂、軍擴競爭의 責任이 모다 日本이 지게될 것도 不免할 것이다. 오늘날의 政治的、經濟的孤立에서 또 이같은 責任을 입을 밖에 없다면 國防自由의 實際的 效果는 도리어 그 反對結果를 招致할는지 뉘 保障하수 있을 것이냐.

三

滿洲事變으로 國際聯盟을 脫退하였고 中國問題로서 天羽聲明을 發한 오늘날 또 다시 國防自由로서 軍縮會議의 脫退를 覺悟하는 日本의 孤立孤守的 態度는 그것이 果然 妥當한 國策이라 할가. 아직도 國際關係가 나아갔으니 列國을 對으로 싸울 重大要題는 너머나 벅차게 많다 할 것이다. 時日이 지나는데 따라 漸次로 深刻化하는 「孤立」은 그 影響이 政治的 領域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日英會商을 두고 日英關係가 接近되는 것과 같은 反日的 經濟國網의 結成이 刺戟促進될 憂慮도 없지 않은 것이니 問題는 極히 重大하다.

四

우리는 한번 軍縮會議가 決裂된다는 경우를 想像하야 보자. 萬一 그러케 된다면 軍擴은 戰前狀態로 復歸되어 各國은 赤字財政으로 人民의 負擔을 增加시키게 될것이며 失業과 恐慌은 자칫 내로 자라 內部的 不安은 急速度로 成長되고 말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打開키 爲한 市場의 再分割運動도 그대로 빨리 進展되어 드디어 世界는 헤어 나지 못한 戰雲에 싸이게 될것이다. 이러케 생각는 것이 勿論 한 杞憂요 幻覺에 도라가기를 希望하야 마지않는 바이지만 ...

主義로 平和의 擁護를 그리는 것도 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오직 兩國은 互讓的 精神으로 國際關係의 正常的 發展을 促進하는 것이 옳은가 또는 東亞의 平和를 特殊機關으로 維持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의 解決의 責任은 누구에게 있느냐. 兩國內閣은 보다 더 責任이 重大할 것이다. 果然 岡田內閣은 이에 有爲할 것이냐 無爲할 것이냐. 「알류시안」米海軍 根據地 設置問題는 이때 緊張된 時局을 더욱 緊張케 하는 것이라 하겠다.

日中懸案解決次 停戰協定廢棄要求
關東軍側은強硬態度로反對
二十四日大連會議

【大連二十四日發聯合】 塘沽停戰協定 並 其後處理에 關한 日中大連會議는 二十四日午前十時 星浦에서 關東軍側에서 參謀副長、岡村少將、喜多大佐、柴山中佐等出席、中國代表로 殷同氏가 參加、北中國懸案處理에 關한 重要會議에 入하였다. 會議開始와 共히 殷同氏는 目下 莫干山에 滯在하고 있는 黃郛氏의 傳言을 據하고 政權의 發展을 圖謀하는 同時에 塘沽停戰協定의 附帶條項에 基하야 實施된 北中國 諸施設의 停戰協定廢棄要求에 對하여는 關東軍代表는 依然强硬態度를 堅持하야 다음의 諸條件을 提示하고 議題되다.

一、停戰協定廢棄를 承認하면 그 前提로 上海事變協定을 包含한 事變의 損害賠償을 處理하라

一、國民政府는 滿洲國을 承認하라

右兩條件이 成立치 아니하면 停戰協定廢棄는 絶對로 不可能하다는 意味를 言明하야 事實上 會議要求를 一蹴하였고 會議는 午前十一時二十分에 至하여도 續行되었으나 右會談을 一月交涉은 中止하고 午後岡村參謀副長으로부터 左의 要旨를 公表하였는데 右發表後 岡村副長은 喜多大佐同伴 午後四時二十分列車로 新京에 歸還、柴山中佐도 二十五日出帆의 長平丸으로 任地에 歸還하며 殷同氏만은 더 二、三日大連에 滯在하야 關東軍當局과 會見後 海路로 歸任하리라고 觀測된다.

"現下의情勢上 協定廢棄는無理"
大連會議와陸軍側態度

【東京電話聯合】 北中停戰協定 廢止에 關한 大連會議에 對하야 陸軍中央部에서는 이會議에 對하여는 中央에는 何等의 連絡도 없으나 中國側으로서 要求한 通車問題가 解決되면 停戰協定도 廢止하여 달라는 것에 不過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黃郛의 北行은 不可能하다는 것도 漏洩하고 있으나 그러나 北中에 對한 昨年來의 日中交戰은 中國의 排日 其他對日關係의 正常치 않은 것에서 發生한 것이다. 關東軍이 自發的으로 一旦 戰鬪行動을 中止하고 그直後에 이 狀勢에 그러한 停戰協定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狀勢에 變化가 없었다. 어떠냐 하면 北中만에서도 아직 ○○段階問題等 複雜이 서지 않을뿐아니라 一般의 狀勢가 依然히 不改되는 中國의 狀勢로 보거나 對日關係는 何等改善되지 않은 것이라 도리어 惡化하고 있다. 卽 現下의 中國情勢는 停戰協定을 廢棄할 何等의 理由도 根據도 存在치 않다. 그리고 殷同氏가 如何히 努力하드라도 關東軍當局은 이것을 ...

赤軍의大戰車隊
第二次五個年計劃에 全力을 集中하고있는 蘇聯이 그技術의 工場生産으로 만드러낸 戰車隊의 偉容

中島男起訴後 某前閣僚도召喚
事件은더욱進展

【東京電話聯合】 大藏省疑獄事件에 關하야 前後三日間에 亘하야 召喚取調를 受한後 去二十一日 市谷刑務所에 强制收容된 元商工大臣 中島久萬吉男에 對하야는 其後取調로 收賄事實이 움지기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小原法相은 岡田首相이 二十八日 神宮參拜에서 歸東함을 待하야 詳細報告하고 內閣에서 上奏御裁可를 仰하는 手續을 取하야 正式으로 起訴하기로 하였다. 또 中島男의 起訴手續이 終了하는 同時에 事件은 더욱 進展하야 前閣僚某氏의 召喚取調는 免치 못하리라고 한다.

定例閣議
首相官紀肅正의 訓令發表를決定

【東京電話聯合】 二十四日의 定例閣議는 午前十時十五分부터 首相官邸에서 開하고 먼저 別項과 如한 人事異動을 決定한 後 岡田首相이 過般政府가 中外에 聲明한 現內閣政綱中 官紀肅正의 特히 新閣使命에 鑑하야 이를 强調하기 爲하야 그 第一着手로 全國官吏에 對하야 岡田首相의 名義로써 官紀肅正의 訓令을 發하기로 提議하고 全閣僚가 異議없이 贊成하야 直時 河田書記官長의 手許에서 起草하기로 하였는바 그 大體는 最近 身分保障令制定과 同時에 官紀가 弛緩한 危懼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此際各員은 ... 와 如히 論하였다.

臨時議會召集은 政策實行方策
山崎農相 談

【東京電話聯合】 臨時議會問題에 對하야 山崎農相은 二十三日 左와 如히 言明하였다.

臨時議會問題에 對하여는 自己로서 就任以來 考慮中이었는데 그러나 먼저 어떠한 案이 出來할는지가 先決問題이므로 目下 未定中이다. 政友會에서 말하는 臨時議會를 開하는 것은 勿論 贊成이나 臨時議會를 開하느냐 안하느냐는 政府의 實行方法으로 政策을 ... 따라서 內閣이 公表한 政綱 ...

五相會議解消
今後로는各關係의 閣僚가隨時로協議

【東京電話聯合】 現內閣의 第二次五相會議는 今日閣議散會後 午後一時半부터 開催하고 前日에 續하야 廣田外相、大角海相이 國際的 事情을 中心으로 意見을 交換한 後 五相會議의 形式은 이것으로써 一旦 解消하고 今後는 一九三五、六年의 國際的重大危機를 克服할 國防、外交、財政、對策을 協議하는 境遇에는 必要에 應하야 隨時로 軍部、外交、財政의 各關係閣僚가 參集하야 岡田首相을 中心으로 協議할 方針이다.

滿洲國官吏 減俸實施

【奉天二十四日發聯合】 滿洲國官吏의 俸給改正은 七月一日의 新年度부터 一齊히 行하기로 되어 中央各省도 査定을 考究中이던바 奉天省公署에서는 그 査定으로 本月부터 減俸俸給이 支給되었다.

五相會議의存否
今日閣議에서決定
首相裁斷如何注目

【東京電話聯合】 五相會議의 存否에 關하야는 閣僚間에도 種種의 意見이 있고 岡田首相으로서도 이것을 停止하는 意向을 가지고 있으나 閣僚中에는 明年의 軍縮會議에 對한 國防豫算의 成立等에 對하야 海軍、外務、大藏의 關係閣僚中에는 今後 隨時 折衝하는 것이 必要한 境遇가 많으므로 ... 岡田首相이 果然 此에 對하야 如何한 裁斷을 下할는지 各方面에서 注目하고 있다.

日本은武力으로 內蒙古를合倂?
◇카라한氏外蒙古로向發
蘇聯邦紙의論評

【東京電話聯合】 某處着情報에 依하면 過般來 外蒙古首都에서 開催한 外蒙古共和國 十周年紀念祭에 蘇聯大使 카라한氏가 出席하야 모스크바에서 發行될 오스소、엑스프레스紙는 카라한氏의 外蒙古行에 對하야 左와 如히 論하였다.

最近外蒙古에 日本人이 자주 出入하게 되었으므로 蘇聯側은 漸次 日本側의 外蒙進出에 對하야 念慮하게 되었다. 日本側은 滿洲國의 安全을 圖하기 爲하야 近接한 內蒙古의 合倂을 策動하게 되어 最近 內蒙古의 滿洲國에 對한 感情은 ... 이에 따라 結局 日本은 武力으로써 內蒙古의 合倂을 決行할 것이다.

英윌킨스氏 北極探險再擧 探險船建造

【倫敦二十三日發聯合】 三年前 潛水艦 노-치라스號로 北極探險에 失敗한 濠洲人 윌킨스氏는 再擧키로 하고 新計劃이 이의 北極探險用의 潛水船을 英國에서 새로 建造하기로 되었다. 出發期日은 明年이 될터인데 今回使用할 船舶은 北極航行에 適當한 모든 新式構造로 裝備될것으로 氏는 이것을 타고 北極地帶를 橫斷하야 베-링海峽에 出하려는 것으로 그 航程 二千哩中 千三百哩의 潛航을 할 豫定인데 同氏의 夫人도 同乘하리라고 한다.

米海軍偵察機 아스토리아에서 씨아틀에到着

【시애틀廿三日發聯合】 ≡所要時間二時間二十五分≡ 아류산列島에 飛行中인 米海軍偵察機 第二編隊 六機는 廿三日午前十時五十五分 아스토리아에서 사이아틀에 到着하였는바 所要時間은 二時間廿五分이다.

"通告를無視하면 斷然히處置"
各國軍滿洲國境練習問題에
儀我大佐歸任後談

【山海關廿四日發】 各國駐屯軍의 滿洲國境附近에서의 演習問題 其他重要懸案事項을 終了하고 二十四日朝 歸任한 儀我大佐는 如左히 말하였다.

英國으로서는 滿洲國을 承認치 않았으므로 中國의 一部라고 하야 義和團事件의 議定書에 基하야 日本의 通告에 應치 않는 모양이나 各國駐屯軍은 英國에 一任하고 있는 關係上 英國과 協調하게 되면 만 解決되면 其外도 全部 解決될터이다. 英國으로서는 問題의 紛糾를 念慮하야 今後 國境附近에서의 演習은 愼重히 할 것이오.

來二十五日午前五時三十分부터 九時三十分까지 四時間동안 行하는 英國軍의 機動演習의 豫定地點을 實地踏査하야 山海關으로부터 大石河口以南에서 實施하는 것 같다. 萬一 各國駐屯軍에서 此方의 通告를 無視하고 演習을 하는 境遇에는 旣定方針에 基하야 斷乎한 態度에 出할 決意를 가지고 있다.

辭令
依願免本官 稅務監督局事務官 金永運
... 桂광淳

消息
▲米國學生觀光團 二十三日 釜山으로부터 米國男女學生團 九十餘名의 一行은 ... 三十一日 第六列車로 ...

▲具滋觀氏(京城法院判事) 市內淸進洞一四六番地 ...

▲田中委員(本社客員) 約一個月間豫定으로 明二十五日午後 時四十分 京城驛發 東京에

今日本紙十二面

墺國社民黨의 反政府陰謀
◇事前에發覺되어

【維也納廿四日發聯合】 過般解散된 墺國社會民主黨은 ... 過激政策에 依하야 ... 社會民主黨殘黨의 反政府陰謀가 判明하야 一味의 檢擧에 努力하야 過去四十八時間內에 逮捕된 者 千名以上으로 刑務所는 大滿員의 形便이다.

府縣會議長代表 負擔均衡等陳情

【東京電話聯合】 全國府縣會議長代表 用中(東京)池本(京都)氏 ...

米國은어째서 海、空軍根據地를 알류시안에建設? (三)
各方으로본軍事的價値

알류시안群島의 軍事的價値

(一) 이最北方航路는 季節上 作戰이 可能한 境遇에는 或은 採用되지 않는다고도 할수없다. 이같은 境遇에는 「떠치」港을 前進根據地로 한다면 小笠原島方面까지의 距離는 約二五〇〇哩로 短縮되므로 米海軍으로서는 條件이 좋은 것이다. 萬若 米艦隊는 「떠치」港에 各艦이 集合하야 小笠原方面에 向하야 假定하야도 「떠치」港은 飛行機는 勿論 小型巡洋艦 巡洋艦以下의 補給根據地도 되므로 事實上의 價値를 發揮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最北方航路는 季節의 關係上으로 採用不可能한 境遇가 있을 것이다.

이같은 境遇에는 米艦隊로는 當然히 (二)의 比較的 安全한 航路를 取할 것이다.

이境遇의 아류시안群島는 어떠한 軍事上의 價値가 있을 것인가. 大艦隊方面 兵力에 큰 差異가 있는 境遇에는 巧妙한 兵術에 依하야 敵力을 分離시키고 이分離된 敵力의 一部에 對하야 優勢로써 이것을 擊破하고 漸次 他에 及케 하는 것이 兵術의 妙諦이다. 例하면 日米戰爭中 小笠原方面에 「떠치」港에 巡洋艦의 一隊를 配하여 것은 이같은 主旨에 基한 것이나 이主旨는 良好하다 하여도 「떠치」港의 作戰이 「카우치」 附近에 있는 것이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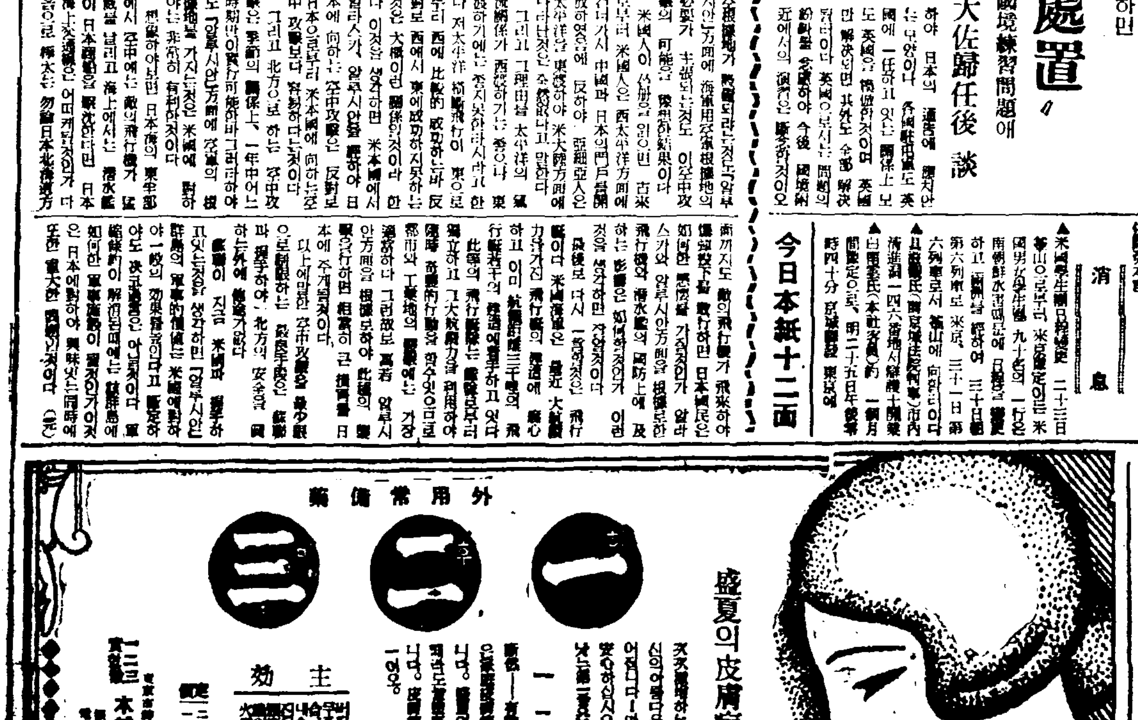
그러데 米國의 太平洋作戰에는 이敵力의 分離 卽 日本艦隊를 分離케 하야 이것을 各個로 打破하기 爲하야 分離派遣될 자는 作戰을 세우기에 條件이 좋은 根據地가 두 곳이 있다. 其一은 「떠치」港이 比律賓이다. 他一은 「떠치」港이다. 現在 米國은 比律賓에 一萬噸巡洋艦 一隻을 基幹으로 한 小艦隊를 配置하고 있다. 그러게 되면 日本으로서도 이에 對抗하기 爲하야 同一한 一萬噸巡洋艦 一隻을 두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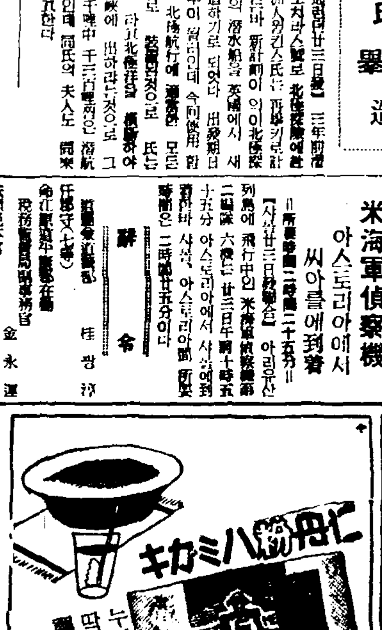
아류시안에 있어서 日本이 對抗하려면 日本의 一萬噸巡洋艦 二隻을 두고 日本이 이에 對하야 ...

空軍根據地로서의 알류시안群島

最後로 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空中兵力의 根據地로서의 알류시안群島의 價値이다. 太平洋戰爭은 唯獨艦隊戰 又는 艦隊에 伴한 空中兵力에 依하야만 行할 뿐아니라 同時에 全然 獨立한 空中戰도 일어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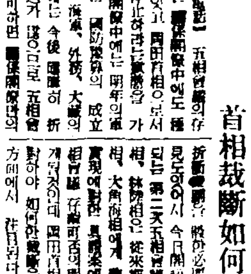
例하면 米國은 米本國에서 알라스카、알류시안群島를 經하야 樺太와 北海道方面에 對하야 空中攻擊을 行할수있는 것이다. 알라스카의 「페어뱅크스」附近에 陸軍航空 ...





民刑事親切取扱
金用茂法律事務所
電光 一七四大番

南京虫退治에는
イマヅ 蠅取粉 芳香油가 第一
試驗의 結果
發生을 防止하



洛江增水最高絶頂·鐵橋危險切迫!

洛江刻刻增水鐵橋도危險
四千避難民風前燈火
上流地方暴雨로昨夕增水卅二尺
三浪津災民避難地도浸水

【三浪津에서特派員金勝文至急電報】 방금 삼랑진(三浪津) 낙동강은 상류지방의 폭우로 인하야 각각으로 증수되어 오후三시 현재三十二척으로 금번최고기록을 지엇고 마산(馬山)행 낙동강철교는 위험상태에 떨어젓다。철도국측에서는 대경계를하는중이고 삼랑진역부근에 잇는 四천피난민의 생명은 풍전의 등화갈이 되엇다。

【三浪津에서特派員金勝文電報】 방금물은 자꾸증수되어 침수가옥이 四백호 피난민 六백五十명은 극장등에 수용하고 영정(榮町)에 침수가되는중이오 비는 또 온다。

最高記錄突破

【三浪津에서 特派員 金勝文發電】 삼랑진낙동강수위는 二十二일의 금번최고기록을 돌파하야 二十四일오후一시 현재 九메돌六五에달하야 금조부터 계속증수중인데 이는 상류지방의 강우로 인함이다。본사구호반은 밀양과 삼랑진피난민에게 약품과 쌀로 응급구호를 마치고 귀포로향하야 출발하엿다。

◇……進永長燈里浸水倒壞된人家……◇

慘禍를極한 露天生活

【지방지국전보】 금번 수해로 고립된섬에서 나온사람의 보고에 의하면 그섬에는 二十二일부터 피난자 一천六백명이 되는데 현재까지 강우를 맞고 노천에서 잠자지도 먹지도못하고 생명만을 겨우부지하고 섬끝인동에 물은 어지않고 증수되어 남은지면이 높이 四척밖에 남지않어 전부 섬수는없고 무풍을맞서서 생명이 경각에 달하엿는데 구호선을 보내라고 목이메지게 부르고 잇으므로 아침 五시에 대도(大島)마산경찰서장과 소림(小林)군수등 구호대는 현장에 급행하엿는데 의사자가 다수일모양으로 동면(東面)에서는 四명이 발견되엇다。

患者續出

【龜浦에서特派員裵鍾哲發電】 二十四일 가락면 상덕리(上德里)동면 죽림리(竹林里)에서 二호 대저면 평강리(大渚平江里)에서 一호 총합 六호가 발견 되엇는데 이것들은 하천의제방이 결괴되어 탁류가 닥히 몰려왓스매 그 제방아래에 잇엇든 대저면 도도리(桃島里)와소덕리(小德里)의 부락이 유실 된것으로 추측된다。그밖에 사망자의 수도 상당한 모양인데 각지의 교통이 전부 두절되어서 아직 알수없다。이재민중에는 병자가 속출 한다는데 구제의 손이 모자라서 곤난중이다。

咸安의四面泥海化
飢寒에우는三千災民
流失浸水家屋五百戶

【함안지국전보】 함안(咸安) 제二수리조합구역은 지난二十一일 오후一시에 결궤되어 구내수전 五백八十정보에 심은 농작물은 탁류로 전멸되는상태에 빠젓는데 가야(伽倻)시내는 당일오후十一시에 약간침수되엇든바 풍우계속으로 二十二일 최고수위十척二촌까지 달하야 동일오후四시에 함안제一수리조합 제방이 역시 결궤되어 구역내 수전 一천백五十三정보의 농작물이 전멸되어 망망한 탁류는 바다와다름 이루엇다。산인(山仁) 법수(法守) 대산(代山) 가야(伽倻) 四면은 전부함몰된 바다로되어 침수、파괴、유실된가옥 약五백호에 달하고 피난민은 三천명에 달한다。강우는 최고五백四十五미리로 매일계속되고 금후에 폭풍까지 계속중이므로 구조선의 출동까지 방해되어 매우위험상태에 들어 이재민은 구조하수없어 바람의 종식을 기다리고 잇는중이다。피난민중 가야면가배방은 하피와 동인창고에 수용하고 금번의국에서는 구호에종사하고 마산도립의원에서는 의사가 출장하야 병자를치료중이다。

安東邑에濁浪怒號
百廿餘災民漂流
十七名救助、其他去處不明
倒壞六百九十戶

【대구지국전화】 경북안동(安東) 읍내에잇는 영호루(映湖樓)에 공사중인 인부 백명은 二十四일 오후二시에 호우로인하야 나려미는 낙동강 홍수에 휩쓸려 三명은 배로 구조받고 十三명은 헴처육지에 나오고 남은 八十四명은 탁류에 밀려 떠나려갓다는보고가 경북도보안과에 도착하엿다。영호루 아래잇는 四호의초가에는 피난민 四十명이 모여 잇다가 탁류에싸여 떠나려가고 한사람만 풍산면(豊川面)에서 건젓다고한다。안동지방은 현재강우중으로 읍내는 탁류가 도도히 흐르고잇다한다。

【경북안동지국특전】 二十三일 오후一시 낙동강물이 미범하야 시내는 전멸 상태에 빠젓는데 도괴가옥이 현재六백九十三호에 이재민이 근만명에 달하는데 격류에 쓸려나려가 죽은자가 백여명에 달하는데 교통이 두절되어 구호의길이 없고 비참을 극햇다。

本社救護班 決死的 活動
三病院救療에呼應
洛江下流로出發

【龜浦에서本社第一救護班發電】 재해시의 참담한정항과 주린우에 병으로 신음중인이재민들을 위하야 본사구호반은 부산에서 동산의원(東山醫院) 이근용의원(李瑾鎔醫院)과 귀포에서 갑산의원(甲山醫院)의사를 대동하고 또약품과 식료품을 가지고서 즉시구호와 의료에 삭수하엿다。

【龜浦에서本社金海救護班發電】 본사김해구호반은 특파원 배종철(裵鍾哲)이솔하에 반동기선 하재에 식료품을 만재하고 노도광랑을 무릅쓰고 낙동강하류 벽지에 향하야 二十四일밤에 급행하엿다。

雲谷으로激流遡航
死線災民歡呼狂喜
하늘만처다보고痛哭든三百災民에게
第二救護班食糧分給

【榮山浦에서特派員金容煥發電】 본사구호반은 영산포시외에 잇는 운곡리(雲谷里)로 향하야 배를 새내어 격류를 무릅쓰고 일주일동안 홍수에 싸여 교통과 통신이 전연두절된三백여명의 이재민의 안부를 염려하면서 구、에 출동한것은 기보와 갈거니와 구호반一행八명은 생명을 四명의선부에게 맡기고 격류를 거슬려올라갓다。배는 오전十一시영산포를 출발하야 약진고투후에 정오에 겨우 본사구호선은 진멸상태에 빠젓던 운곡리에 도착하엿다。

운곡리는 산기슭에 붙려잇는데 六十七호중 三十六호가 전괴되어 수면에 집웅만보이고 잇을뿐이고 문어지지 않은집도 벽파기구능이 전부 유실되고 기둥과 집웅만 앙상하게 서잇는 가긍한 정상이다。

本社救護旗밑으로
飢寒의災民集中
江景避難民에게 주먹밥을分給

운곡리 전부 주민은 산상에 피난하야 나무그늘에서 부모처자가 뭉처 하늘을 바라보고 비그치기를 바라고 잇던중에 우리구호선을 발견하자 미칠듯이 소리를 질르고 남녀노유 三백명이 배가에 몰려왓섯다。구호반은 쌀 나무와 약품등을 배에서 나려 특파원이 이재민들에게 본사에서 보낸구호반인것을 진하자 감격의 환호성을 발하는동시에 눈물을 흘리엇다。식료품과 약품을 분배하엿는데 구호를받은 호수는 六十七호로 가족三백十七명이다。이재민은 구호반원을 부둥고 「동아일보의 공덕은 우리대대자손들에게 전하여 기념하겟습니다」하고 울아감읍은 모르고잇엇으나 사명을 위한구호반이 배를타고 동지를 떠나자 배가에모여서 남녀노소 소리들어 「동아일보만세」를 불러 전송하여주엇다。

災民의慘境은形言不能

【江景에서特派員李友一發電】 二十四일오후四시부터 구호선二척은 二대로나누어서 피난중개시하엿는데 오후반이 새로부터 피난중 유계속한 작정이다。각경유사구소에수용한 이재민 五백명에게저녁밥을지어서 나누어 이엇는데 곡주민과 치위도 사선에 헤매이든 이재민들은 본사의 기념으로보여 붙어 구호반에게 인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기에 분주하다가 본사 사원의 인사와 취지를 알게 나자 그들은 더한층감격의 인사를하엿다。비록아직도 계속중이고 물은 각각으로 증수되어가는 중인데만 약내의 二十五일에도 역시증수된다면 어재이참경은 강도에달하리이므로 일반시민의 기장은 비장한정도이다。배가부족하야 이재민수용소에 식량배급하기가 곤난한데그우에 시량까지 없어서 곤난이 비상하다。피해면적은 연산(連山)으로부터 황등(黃登)까지 빠져잇습 종으로 五十리 횡으로 四十리의 평야 전부이므로 벼농사정보다 되는지는 추측으로 헤아리기는 정도다。그리하여 수해로 황전이 되엇든 전개 복구하사가 생겨나서 방금 벌어 키어잇다。

本社의救護、救療班
龜浦收容所로出動
感泣하는災民의感激

【龜浦에서救療班辛琮奎發電】 본사구호의료반은 약품을 휴대하고 또귀포감찬의원 의사를 대동하고 피난민 각수용소를 역방하고 매일같이 치료에 종사하고잇는중으로 피난민과 이재민들은 본사구호에 감격하고잇다。

失踪二十五名

【釜山支局電話】 선산군 무을면 신무동(舞乙面新?洞)에는 침수가옥 十九호 도괴 三十호인데 선산군내 각면피해는 목하조사중이다。칠곡군 북삼면 낙계리(漆谷郡北三面洛溪里)는 피해가막대한데 행위불명자가 二十五명에 달한다고 한다。

伊院深川間山崩
急行列車不通

【伊院에서特派員[illegible]電報】 이원(伊院) 심천(深川)간의 철도 선로는 二十四일 오전三시부터 사이에산이무너저 대전(大田)에서 二十三일오후十二시발 급행열차는 불통되엇다。여객十여명은 약十키로거리되는 길을 걸어서 이원에 도착하고 아직도 비는 계속중이나 二十四일중으로 개통될 희망이 잇으리라한다。

發電所에洪水汎濫
安東一帶暗黑世界化

【대구에서송특파원시화】 안동(安東)강으로 흐르는 강물이 홍수로 범람하야 발전소가 침수되엇으므로 안동일대의 전기는 발전불능으로 암흑천지가되어 안동시가는 치참을극햇다。

龜浦方面

【구포지국전보】 구포(龜浦)사장(沙場)대장(大場)등 三개소의 정확한 피해정도는 아직판명되지 않엇으나 二十二일현재조사에 의하면 ▲浸水家屋四四戶 ▲全潰家屋一

二十四日[illegible] ▲[illegible]三〇戶 ▲[illegible] ▲[illegible]二戶 ▲[illegible]五〇戶 ▲[illegible]三一七戶 ▲[illegible]二六〇戶 ▲[illegible]七〇戶

錦山堤防破裂

【금산지국전보】 금산(錦山)주수는十년이래의 초기록으로 들이 두절될뿐아니라 전답이 一천정보나 매몰되엇다。금산 강제방이 터저서 침수가옥四十호 유실三호 사망자一명을내엇고 피난민一백명 이대 경찰서와 군청소방조에서 구호중이다。

龜浦避難民
六處에四千

【구포지국 전보】 二十四일현재 구포(龜浦)에서 피난민 수용 한 곳은大계소인데 인원은 三천大백三十四명인바 아직 더 불어갈모양이라고한다。

ClibPDF - www.fastio.com

長壽山遊記 【上】

妙香寺에서 安民世

六月二十三日 海西遊覽의 길을 떠낫다. 願日月을 有意케 쓰는것이 人生行路의 可慶할일이러니와 [illegible] 이번 九月山을 中心으로한 信川 [illegible] 長壽山의 奇勝을 찻고 [illegible] 友人으로 年來에 來遊를 勸誘하든 [illegible] 午前八時四十分京城驛發 一路西으로 [illegible] 長壽山은 黃海金剛의 稱號가 잇고 [illegible] 近年에는 朝鮮八景의 하나라고 [illegible] 妙香寺의 山門을 向하야 十里자최되는 길을 徒步로 들어갓다. [illegible]

[illegible] 그만두자!

[illegible] 長壽山 [illegible] 妙香寺의 [illegible] 奇岩怪石 [illegible] 가지면서 [illegible] 잇는 [illegible] 一味의 [illegible] 風景을 [illegible] 대소나무 [illegible] 村落을 [illegible] 비에젓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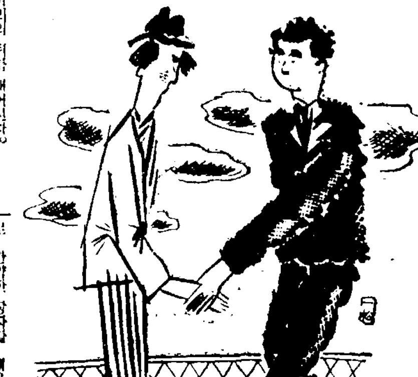
[illegible] 妙香寺에서 左右를 보면 [illegible] 長壽山의 [illegible] 七層의 石塔이 [illegible] 金銀을 캐는 一雙의 夫婦 [illegible] 옛날 옛날 [illegible] 이 山中에 들어와 [illegible] 妙香寺를 投宿하다

夏街漫步 (3)

햇볕업는거리여

文、畵 崔永秀

햇볕업는거리에서 C란 사람을 만낫다. 내가 그를 만나게된것도 참으로 우연이엿다. [illegible] 七年前 [illegible] 一金三十圓也 [illegible] 하야 그대로 [illegible] 行電車가 우리의 [illegible] 그 수척한 얼굴에 [illegible] 이야기는 이 [illegible]



[illegible] 開業한지 一個月 二十日인 [illegible] 그러고 그는 무거운 [illegible] 一그러고 그는 [illegible] 것이엇다. ×

[illegible] 머리의 뒤를 대어선다. 그럿다! 그것은 C혼자만의 [illegible] 「세리」 [illegible] 햇볕업는거리! 不絶하는 어두운 [illegible] 햇볕업는 沈鬱한 거리여—

◇詩◇ 埠頭·여름·

金光涉

埠頭— 이거리의 입은 어제밤도 오늘밤도 배가닷는때마다 歡笑, 憂鬱, 怨恨, 自殺…… 모든生活의斷片들을 吐해놓려가며 커다란 입으로 흑흑 내뿜습니다

◇

그斷片中의 한토막은 香氣로운 異邦의 肉香과 漂然한알콜의 냄새에 레스토랑, 빠—, 카바레—, 그리고 [illegible] 門앞을 뚝뚝히합니다

거륵한 이거리의紳士, 淑女! 그러나 可憐한 理性의 喪失者! 그들에게 [illegible] 거리를 허매지못하는 理性이나마 아직 남어잇는가 봅니다 수선스런 人形들의 狂亂이여!

◇

그斷片中의 다른 한토막은 飮氷室 [illegible] 가슴을 [illegible] 빈대와싸우는 [illegible] 의 悲鳴! 다바하잔의 아이스크림으로 [illegible] 라는 [illegible] 마음이여!

◇

그斷片中의 다른 한토막은 섣부른 [illegible] 어스무례한 [illegible] 罪없는 [illegible] (人生이 本來 [illegible] 론이나 [illegible]

◇

그斷片中의 또다른 한토막은 [illegible] 一攫千金!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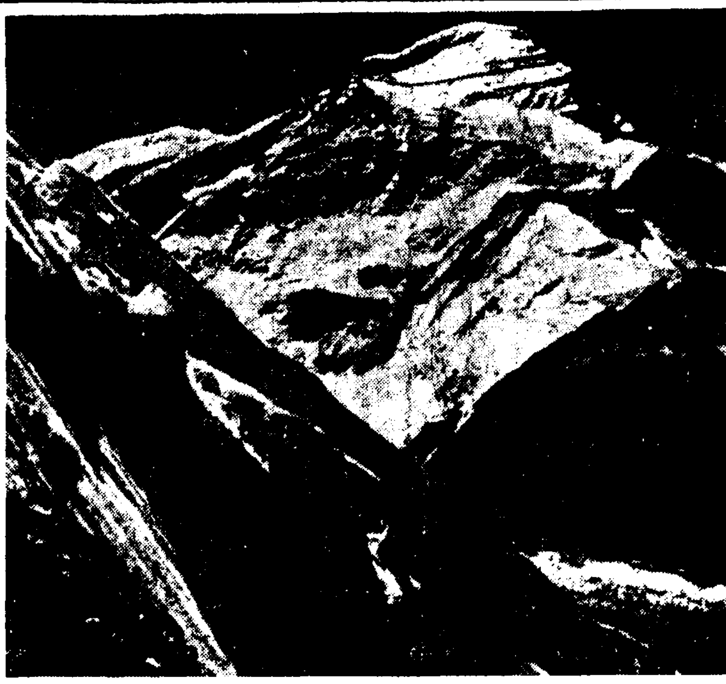
(人間生活이 本來 [illegible]) [illegible]

埠頭— 이거리의 입은 [illegible]

(一九三四年·七月·於上海)

異國의 涼味 【1】

히말라야峰頭의萬年雪



여름이 되면 구구나 시원한 곳을 찾는다. 그러나 일에 얽매엇거나 費用에 막히운 사람은 앉아서 [illegible] 다. 四時長大 雪線우에 솟아 녹을시이 없는太古그대로 [illegible] 생각만 하여도 얼마나 시원하냐.

週間短篇

奴隷 【二】

李箕永

[illegible]

(挿畵 李象範)

◇文學에잇어서의客觀◇

新心理主義에서問題을取하야 (二)

尹鼓鍾

[illegible]

紀行 水香記 (下)

李大容

[illegible]

(끝)

第四回 全朝鮮 男女夏期音樂講習

場所 京城府外延禧專門學校

期間 七月三十日부터八月八日까지十日間

種目 피아노、바이오린、聲樂、樂理、敎會音樂指導法

講師 蔡東鮮、金永義、蔡善葉、朴慶浩、玄濟明

會費 八十名、會費 [illegible](外에寄宿舍入舍生은食費七圓)

主催 延禧專門學校音樂部

後援 東亞日報社學藝部

今日프로 水曜日 JODK

▼午前十一時五分 氣象通報、料理法、日用品時勢

▼正午 時報、今日프로그람發表

▼午後零時五分 俗謠 [illegible]

▼一時 野球試合實況、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中部豫選 (準決勝)—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

▼四時 뉴—스、職業紹介事項

▼六時三十分 童謠

▼六時五十五分 라디오學校、圓 東八景巡禮 (二)

▼七時三十分 뉴—스、天氣豫報

▼八時 京城으로부터全國中繼 朝鮮音樂 [illegible]

▼八時二十五分 南道雜歌 [illegible]

▼八時五十五分 連續講談 [illegible]

▼九時三十分(東) 時報

▼九時三十一分 歌曲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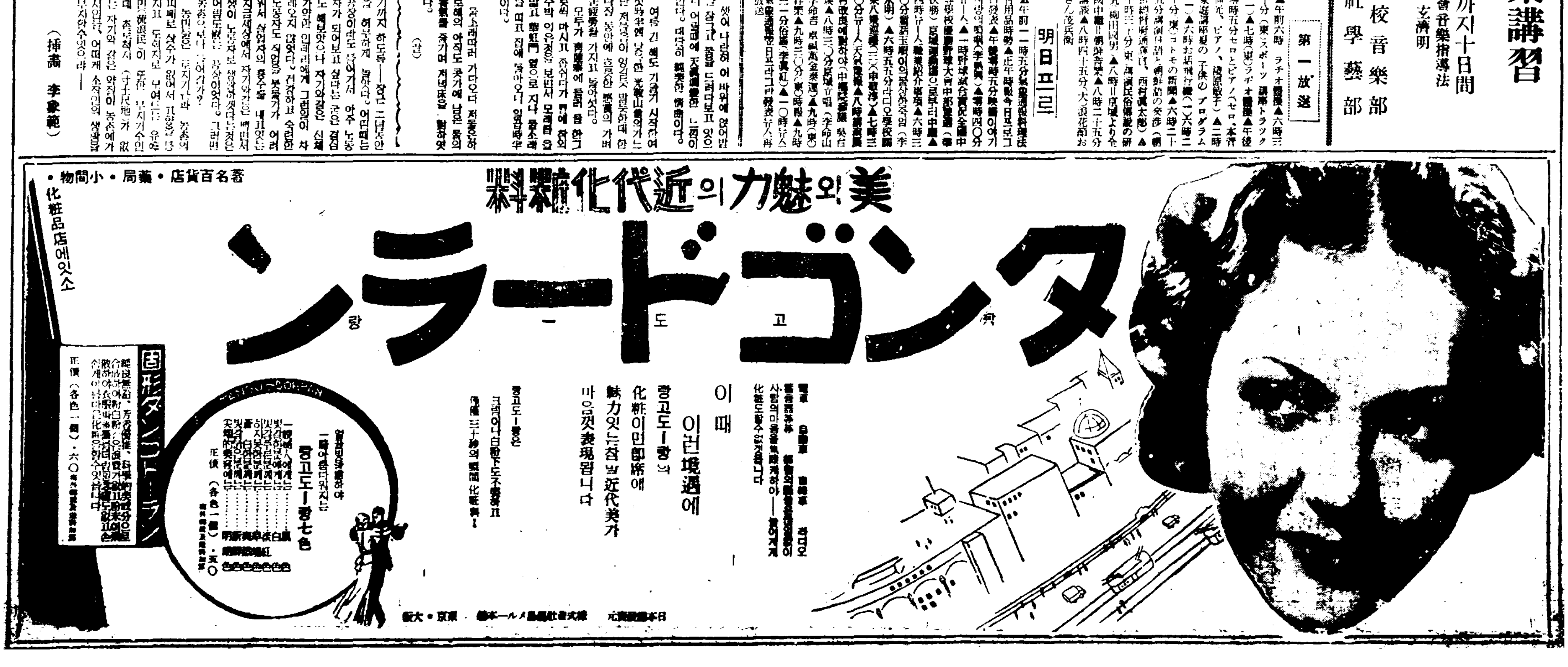
▼十時 뉴—스、氣象通報、明日프로그람發表、뉴—스再放送

第一放送

[illegible]

明日프로

[illegible]



商工業者의 所得稅

―必要經費란무엇?―

安田京城稅務署長 談

個人所得稅는 各人의 所得에 課稅한다. 그리고 商工業者에 對한 所得稅는 前年의 總收入金額에서 必要한 經費를 控除한 金額」을 所得의 基本으로하고 課稅한다. 그러면 「總收入金額」이란는가 「必要한 經費」라는가는 如何히 計算하는것인가 이에 對하야 疑問을 가지고 잇는者가 相當히 만흔듯하고 이 問題는 現在商工業者로써 所得申告上 直面한 重要한 것이므로 一次 簡單의 說明을 試하고저 한다

總收入金의 計算

一言으로 말하면 營業上의 利益 들어오는 件質의 利益은 一切 所謂 總收入金이다. 그러나 營業上의 收益이 即 總收入이다 그러나 營業上의 利益은 各各장사의 種類에 依하야 다르다 이제 가장 數가 多한 장사 即 物品販賣業의 境遇에 對하야 말한다면 物品販賣業은 物品을 仕入하야 販賣하고 그 賣買上으로 남는 것이 장사의 眼目이다 거기서 于先 商品의 「賣買差益」이 第一番의 收益이다 거기에 여러가지의 雜收益, 例하면 장사로 口錢을 밧엇거나 手數料를 收入하엿거나 或은 又 古箱類를 賣却하엿다는 장사에 附隨한 收益을 加算하면 그것이 即 이 境遇의 「總收入金」이다.

그런데 第一眼目으로 되는 商品의 賣買差益이라는것은 그다지 簡單하게 計算이 되지 안는 때가 만타 그것은 一品마다 八十圓으로 仕入하야 百圓에 賣하엿다 따라서 二十圓 남엇다는것과 갓이 明確하게 計算이 되지안는다 그것도 商品이 單一하고 例하면 米產地의 米商이 貨車로 장사하다 境遇에는 一車마다 賣却한 品物의 原價를 計算하고 그것으로 多少 남기엇다는 計算이 되는바 通常의 境遇에는 잘 計算이 되지 안는다. 그래서 大體 이런 方法으로 商品의 賣買差益을 計算하면 좃흘것이라고 생각한다

賣上金額
現在商品原價
計
內控除 仕入金額 前年末商品原價
差引賣買差益

即 前年中 賣上金額을 計算한다 現金으로 판것도 외상으로 판것이나 一切로 計算한다 다음으로 其十二月末日에 現存되야잇는 商品의 原價를 調査한다 所謂 商品의 棚卸勘定을 現品으로 調査하고 品物의 仕入原價를 計算한다 其棚卸를 한 時의 時勢로 計算하지않고 最初에 仕入한때의 價格을 計算한다 이 現在商品原價와 前의 賣上金額과의 合計에서 前年中의 仕入金額과 前年부터 繰越된 商品의 原價와를 控除한다 그러케하면 그 殘額이 即賣買差益이다

仕入金額의 計算法은 賣上金額의 計算境遇와 同一하게 前年一月부터 十二月까지 仕入된 金額 一切를 計算하며 現實代金을 支拂한 與否를 不問한다 繰越商品原價는 即 前年末 現在의 商品의 原價임으로 現在商品原價計算의 境遇와 同一한 方法으로 計算할것이다

以上은 物品販賣業의 境遇의 例를 擧한것이나 製造業의 境遇에도 右의 方法으로 計算된다 單只 다른 點은 製造業의 境遇에는 單只商品뿐 아니라 原料品, 半製品等도 計算에 넣어야 한다

料理店이라든지 旅人宿이면 全然計算方法이 달라진다 計算方法이라하야도 計算할科目이 달라진다 料理店等은 前述한 物品販賣業境遇의 計算으로하는外에 茶代라든지 藝妓玉代等을 加한다 旅人宿이면 宿泊料 茶代가 主要한收入인것은 說明할必要가업다

要컨대 營業上의 收入 一切의 「總收入金」으로다 밧는觀念上의利益(品物의 評價增等의利益)、營業에關係가 없는 利益은 計算에 넣지 안는다

必要經費의 計算

「總收入金額에서 控除할 必要한 經費」라는 것은 如何한것인가 稅令에서는 單只「必要의 經費」라고 定하엿으나 이것이라는 施行規則의 規定에 依하면 「收入을 得하야 必要한것에 限한다」는것이다 元來經費라는 觀念이 이미 收入에 因果關係를 가진것에 限한것이므로 施行規則은 其範圍를 明確히 示한것에 不外한다

이 必要經費도 또한 各各장사의 種類에 依하야 다르고 여러가지 境遇를 여기에 詳述하는것은 甚히 煩거러우므로 于先 物品販賣業의 境遇를 基本으로하고 大體의 장사에 잇는 듯한 經費의 科目을 表로보기로 한다 便宜上, 營業場費, 雇人費, 商品費, 營業費의 四로 大別한다

營業場費
家賃, 地代, 保險料, 修繕費

雇人費
給料, 手當, 賞與, 仕着費, 食費、保健費、慰安費、

商品費
運賃諸掛、荷造包裝費、口錢、手數料、保險料、倉敷料、加工仕上費、動力費、

營業費
廣告費、店頭裝飾費、賣出景品費、配達費、營業上의 負債利子、割引料、器具機械의 修繕補充費、營業上의 租稅公課、旅費、電信電話郵便費、文房具費、薪炭電燈瓦斯、水道費、得意先接待費、營業上贈答交際費、

其他雜費

營業場費는 即 營業을 하는 場所家屋에 關한 經費를 總括하야 말한것이며 萬若 借家이면 家賃, 家만이 自己의것이라면 地代、家屋의 保險料와 修繕費、此等 모두 營業에關한 經費이다。營業을 함에는 場所가 必要하다。店舖가 必要하다。그營業을 爲하야 必要한 場所家屋에關한 經費는 所謂 收入을 得하는에 必要한 經費인것은 疑心할것이 업다。

그런데 여기에 注意할것은 施行規則으로 「家事上의 費用及 이에 關聯한것은 控除치 않는다」는 規定으로 되어잇는것이다。

이 家事關聯費用을 控除하지않는다는 規定의 解釋에 두가지가 잇어 하나는 家事上과 營業上과 雙方에 涉한 費用은 그全額을 控除하지않는다는 解釋으로 他의 하나는 家事上에 關聯된 部分은 其關聯되는 部分만을 控除하지 않는다는 解釋이다。

萬一、前者로 解釋하면 例하면 一의建物內에서 營業도하고 住居도하는 境遇에는 其建物의 家賃이나 修繕費가 或은 그敷地의 地代等全部가 「必要經費」로 控除하지 않기로된다。이에反하야 後者의 解釋을하면 營業用의 部分만은 必要經費로 控除한다。換言하면 住居의 部分에對한것은 必要經費로 控除하지않기로 되는것이다。

法文의解釋으로는 오히려 前者가 正確한것이다、그러나 그래서는 甚히 苛酷한 解釋으로되다、常識으로는 않된다 따라서稅務署로부터 實際의 施行에當하야는、이같은境遇는 그營業用이 部分그自體가 家事上에 關聯되지않는다는 解釋을하고、事實의 認定上에 緩和하야가는것이좋다고 認定하야 그같이 取扱하기로되엇다

다음은雇人費이다

雇人에對한 給料、手當、賞與、仕着費用、食費、保健費、慰安費가 모두必要經費일 것이다。그雇人은 營業을爲한雇人이아니면 않될것이다。家事上의 雇人에 對한 그等의 費用은 計算할것이 아니다

여기에도 家事關聯의 問題가 일어나다 即 營業에도 家事上에도 使用하는 雇人에對한 費用은 어떠케되는가하는 問題이다

建物과 土地의 境遇이면 營業用과 住居用으로 區分할수잇으나 一人의 人間은 區分할수도없다 店員은 大體로 店을 爲하야 使用하고잇는것이나 때로는 「大根」을 사서달라는 境遇도 잇을것이다 그러케되면 使童의 給料나 衣服費用과 食費等은 商店用에 使用하는 部分과 大根을 사러가는 部分을 豫想하고 區分하지않으면 않되는 좀어려운것이다 又女下人은 大體 家事를 爲하야 雇傭하는것이나 때로는 商店의 客에 茶를 내놓을 일도 잇을것이나 第一店員의 食事도 取扱하는것이므로 이것도한 營業上과 家事上에 關聯되는것이다

此等은 잘常識으로 判斷할것이며 「家事關聯의 境遇는 이것을 控除하지않는다」는 解釋이면 使童의 經費도 女下人에對한 經費도 一切이것을 控除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나 問題는 없으나 不然한 解釋을 하는때에는 그區分判定에對하야 잘 常識을 가지도록 主要任務에依하야 區分하고 使童은 營業用、女下人은 家事用으로 使童分은 全部 必要經費로하는것이 좋을것이다

產業

養鷄家의 長霖突破策

―十大秘訣―

이장마때에 練餌는 非常히腐敗되기쉬우므로 決코 當日이것을 남기지않도록 每日一日分式 調理하야 주어야한다 될수잇으면 이期間에는 練餌를 廢하고 粉餌를 使用하는것이 安全하다。無論飼料를 變更하는때에 한번에 하면 危險하므로 一週間에걸처서 조금식變하야 가는것이 必要하다 그리고 自動粉餌器의 境遇에는 粉餌를 一週間分이나 二週間分을 一度에 補充하야 投入하야두면 위의것이 濕氣되므로 二三日分을 一度에 넣어주는데 좋이다。

四、綠餌

綠餌는 優良한 蛋白質을 包含하고 又는 비타민의 完全한 給源이며 또한 灰分을 含有하는 外에 體內에 飼料消化의 際에生하는 酸을 中和하야 腸中毒에서 나는 食滯及 消化機能의 障害를 防止하는것으로 鷄에는 가장 安全하고 無料의 飼料이다 特히 綠餌는 鷄의 色澤을 鮮明하게하는 點에서 產卵에 不可缺한것이며 [illegible] 供給하여야한다 그러나 水分많은 綠餌는 一夜만 지내면 腐敗되므로 一日分만 刈取하야 翌日까지 남기지 않도록 하라

또한 이때는 雜草가 繁茂하나니로 舍內에 많이 던저주어 自由로 啄食케하라

五、滿冷한飮水

水分은 鷄體에 五五%鷄卵에 六五%를 含有하고 保健上으로나 鷄卵生產으로보아 水는 極히 重要한 役割을하는것이므로 每日新鮮한것을 주는것은 當然한 일이나 特히 무더운장마期에는 一日에 二、三回는 갈아주어야한다 다시 容器의 消毒을 一週에 一度式 하여야 適當한 飮水를 主하는 程度로 하여주라。

但 이때에 飮水器는 金屬製의것을 使用치않고 陶器나 硝子製의 容器를 使用하지 않으면 안된다。

六、寢飼

장마때와같이 鷄舍內에 閉込하여두어야할 때에는 寢飼하여두면 病鷄가 생기거나 食羽癖等의 惡癖이 생기기 쉬으므로 寢飼는 반드시 避하고 一坪十羽內外를 限度로 收容한다。이때는 鷄의 多產이나 專產을 區別하는것이 容易하다。即 換羽하기 시작되면 그鷄는 今後 到底히 產卵이 없으므로 아주 淘汰하고 또한 發病의 傾向이 잇는 鷄도 無論 廢鷄로 내버린다。

七、運動

장마때는 사람과같이 鷄도 非常히 退屈되는것이므로 運動이 不足하여서는 病이나 惡癖이 생기는것이 當然한것이니 元氣잇게 運動을 시켜야한다。

運動을 促進하는 方法으로는 切藁를 많이깔고 거기에 粉餌、粒餌를 흩어주어 닭으로하야금 찾어먹게 하거나 綠餌를 거름에뽕어 天井에 달아두고 뛰어먹게하는것도 가장좋은方法이다 그外에 砂浴도 할수잇는대로 시키는것이 좋다

八、糞의處理

糞의處分은 大槪 鷄、或은 [illegible] 크리트의 槽에 投入하야 液肥로부터 [illegible] 肥效도 減少되지않고 手苦도 덜뿐이며 아주 便利하다 그리하야 後日 桑園、畓、果樹園의 施肥準備를 하는것이 좋다

(게속)

滿洲產業觀

徐鶴鍾

三、奉天

奉天은 一名瀋陽이라고 하는바 [illegible] 瀋陽의 名은 元朝에 비롯하야 [illegible] 瀋水以北에 位置하엿든까닭으로 此名이 [illegible] 只今은 다시 奉天이라고 불리는 奉天은 滿洲發祥以來로 滿洲의 가장 重要한 地位를 占하야 現在에는 新興 「滿洲國의 首都」가 아니라 하지만 依然히 滿洲의 心臟인 政治的으로 經濟的 樞軸的 役割을 다하고잇으며 더욱히 工業都市로서는 將來無限의 伸張할 可能性이 잇는 地帶이다 滿洲輸入品으로 보아도 大部分이 大連、營口、安東 등으로 奉天에 集中하야 [illegible] 奉天城內에 消化되고 其奉天品이 沿線各地及支那內地에 供給되는 形便이다 그러므로 奉天은 經濟的으로나 地理的으로나 歷史的으로 今後도 滿洲의 代表的 中心都市라고함이 適當치 어김이없을것이다

四、朝鮮人거리西塔街

[illegible] 旅館에서 [illegible] 好心을 [illegible] 하지않으면 지나지도 못해보는 無名의 거리요 情緖한 거리가 西塔街이다。旅館에서 下女를불러 西塔街가는 길이나 人力車를불러라 맛드니 더러우니 가지말라는 嘲笑를바엇고 불러온中人의 車夫가 「西塔街」하길래 「西塔街」라고하니 亦是嘲笑를주는것으로 보아 于先直覺的으로 奉天의 朝鮮人生活이 어떠어떠하구나하는 豫感을느끼엇다。下女와 車夫에게 實責을주고 車賃을하야 西塔이라는 西塔의거리를 이리저리 더듬엇다。人力車조차 不通하는 거리가 多部分이며 그나마 修理를 안해서 徒步로대니기에도 매우 困難하엿다。집집이 家庭婦人과같은 朝鮮女子들이나서 「朝鮮사람商店이 어디잇느냐」고 물엇든니 「商店이라야 거저 그렇습니다。요리로라 가보시요」하다。「매우 고맙습니다」 人事하고 散步를 옮기매 에「고맙다고만하고 그냥가요?……」하고 뒤에서 同女가 소리를 질은다。알고보니 집잃아 보이는 그女子도 亦是 賣春女엿다。奉天의 朝鮮人生活은 이西塔街로서 代表되는바 奉天은 이러한 [illegible] 限定할수잇는바 料理業이고 旅人宿飲食店 或은 가페―라고하는것은 全部가 內容은 前者에 屬하는것이며 商店이라고는 食料品商의 雜貨商等이 極小規模로 如干잇으며 其外는 全部가 勞働者이며 所謂上級의 勞働者라고하는 人力車 [illegible] 을除하外는 全部가 그날그날의 勞働者이며 多部分은 遊覽地帶에서 자고깨는 失業者라한다。滿鐵附屬地關係의 旅行案內係의 말을들으면 [illegible] 따라서 公園방면 [illegible] 가는데 요새는 徹夜 五六百名의 [illegible] 다고하며 이中에는 專門、大學을 마친이도 잇다하는바 大概는 滿洲國의 景氣를 風聞하고 就職을 目的하고왓든 모양이라고한다(게속)

二倍增收目標로 田作改良에注力

咸南道內의新計劃

【함흥】 함남도당국에서는 도내三十二만 九천여정보(화전을포함)의 전작면적에 十二개여 계획으로 주요전작물의 개량증식을도모하여 현재의二배이상의 증수를 꾀하고저 지난수년동안 착착실시하여오는바 지나간 四년동안의 성적을보면 三백二十四개소에 六백四十八정보의 개량을보게 된바 앞으로도 착착시행할것으로 매우기대된다고 한다。

羅南共販成績不良

【나남】 금년도의 춘잠견 공동판매는 지난十四일부터 시작되엇는바 잠견가격이 하락된 판계로 판매하지 않은사람이 많어서 그성적이 대단히 불량하다는바 공판에 최고될 매수예정판수는 三천 一백여판이나 되는데 十四일부터 十九일까지 판매된것은 九백六十七판 一四九판 가량밖에 않이된다고하며 성적의 판매가격은 최고 一원六十二전 이라고 하는데 十九일까지 가지에서 판매된판수는 다음과같다。

城津	六九七貫 六〇匁
吉州	五三貫
明川	二五貫九一五匁
鏡城	一七五貫二二〇匁
會寧	一五貫四一〇匁

蘇聯農業의機械化 脫穀機도電化되어

蘇聯의 農業은 그集團化와 機械化 領域에서도 偉大한 達成을 遂하고 잇는바 最近에는 脫穀機도 電化되고 從來의 連枷의 리스미카한音도 蘇聯의 農場에서 사라진다는것이다 一九三〇年에는 一六八個所에서 電化된 脫穀機가 使用되대 不過하엿는데 一九三三年에는 一、九二〇으로 되고 本年은 다시 그數가 增加되리이다。脫穀機電化에 使用된 電氣에너루기는 一九三〇年에는 一七五馬力이든것이 一九三三年에는 二〇二三七馬力으로 增加되엇다 電化脫穀機의 가장 普及된 地方은 우크라이나로 七五〇個所, 第二位는 모스코 地方의 一八六、第三位는 白로시아의 三三 다음으로 北 카프카스 우랄의 順이다。一九三三年蘇聯에서 電化脫穀機에 依하야 脫穀된 面積은 四三七、〇〇〇헥탈 脫穀量은 三五〇萬쓴엔트넬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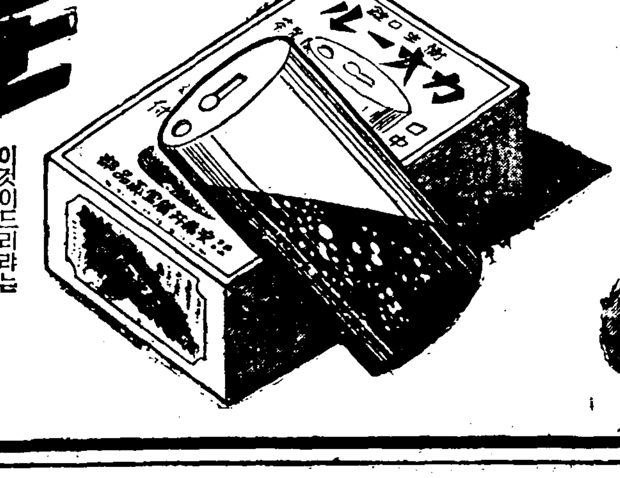
蘇聯商業의近況 ―百貨發展도非常

蘇聯人民委員部에서는 一九三四年七月一日까지에 地方의 中央都市及重要商業中心地에 合計二〇〇의 百貨店을 建設할決議를 採決하엿는데 右計劃은 完全히遂行되어 今年七月一日現在의 地方百貨店의 數는 二〇〇에 達하엿다 第一次五個年計劃當時의 蘇聯商業機關의 支配的인것은 所謂 「閉鎖配給所」이든바 第二次五個年計劃에 入하야서는 「閉鎖配給」에代하야 商店이 漸次 支配的인 商業機關으로 되고잇다 右의百貨店網의發展은 最近의 蘇聯商業政策의 轉換을 말하는 것이다

普通香水에比하야三十倍나진하고
단二三滴으로좋은香氣를오래保存함!

原料香水
オリヂナル의 (오리지나루)

御愛用者께大優待
金五拾錢의
光輝茶金后美術容器付
衛生口錠
カオール (가오-루)
입으로드는病을막고 精神을爽快케하는
カオール進呈


이것이드리라는 カオール 입니다

本品의자랑하는바는
1 普通香水에比하야三十倍의濃度를가젓읍니다
2 一滴의香氣는能히一週間을保存합니다
3 各國高貴한花精卅八種으로되엿合니다
4 複雜한花精이잘調和되어生氣가납니다
5 普通香水처럼실症어안나고누구에게나좋合니다
6 一滴의香氣는宛然히花園에노는맛이잇읍니다

進呈方法
愛用하시는標로 オリヂナル中瓶壹本(定價金壹圓)의空函을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安藤井筒堂景品係로보내시면 カオール光輝茶金后美術容器付(金五拾錢) 壹個進呈합니다
オリヂナル大瓶(定價金貳圓)이면壹個의空函으로 右カオール貳個進呈
オリヂナル小瓶(定價金五十錢)이면貳個의空函으로 右カオール壹個進呈
(郵送은반드시四匁마다(十五日란)三錢切手貼用할일)

本舖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株式會社安藤井筒堂

ClibPDF - www.fasti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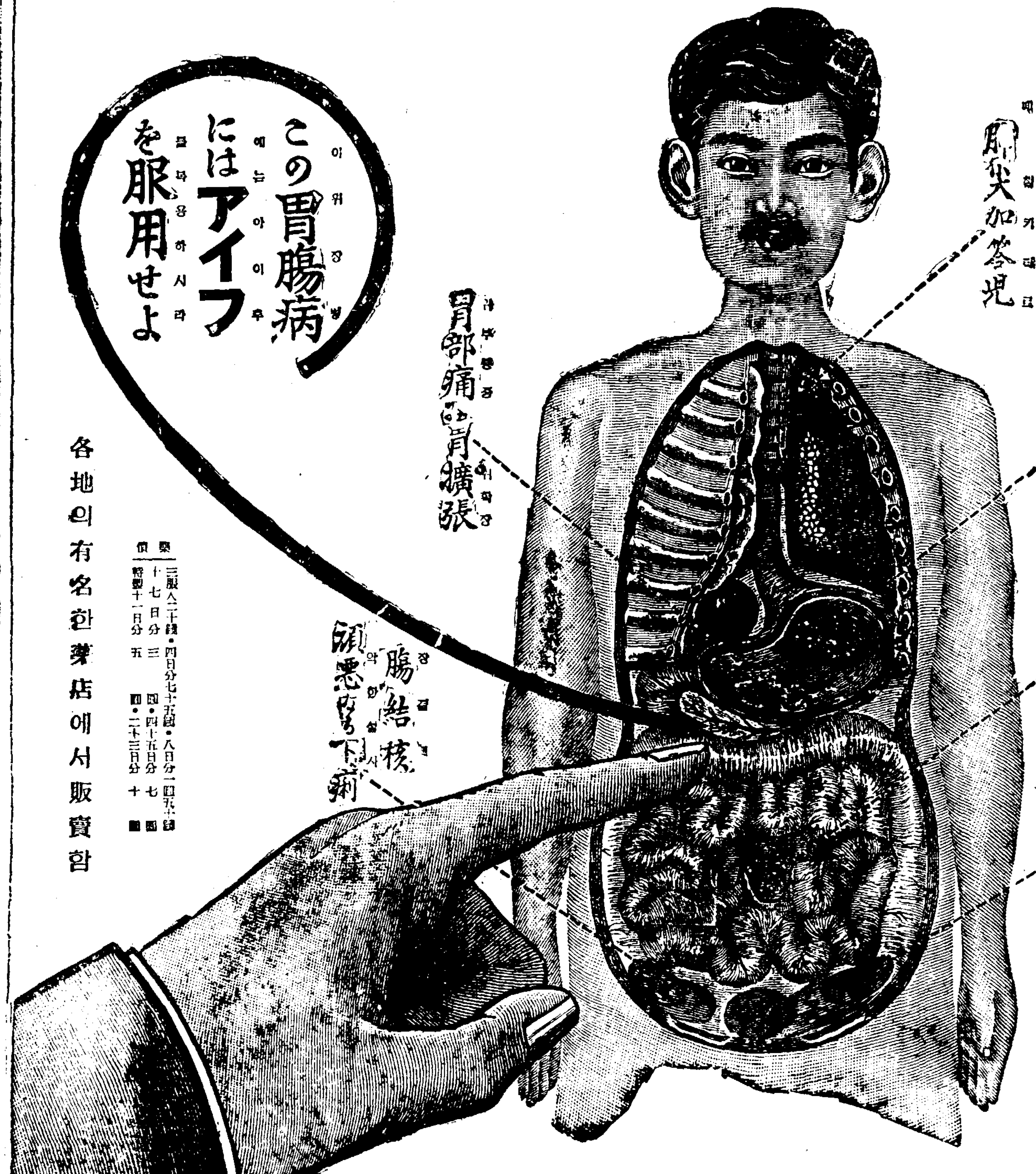
アイフ 胃腸良藥

아이후

慢性胃腸病으로辛苦하는분

그예히アイフ로治療하시라

この胃腸病にはアイフを服用せよ



慢性胃腸病은實로낫기어려운病이라남보기에는그닥지큰病으로보이지않지만腸胃의機能이아조損하고內壁에는무서운헐집과진무른데가생긴때문에

● 食慾不進하고가슴답답嘔逆나고트림나며
● 늘下痢와軟便이오便에는粘液膿汁을混하고
● 배가脹하고꾸르럭거리며 放屁많고下腹痛나며
● 滋養物을먹어도살로가지않고身體衰弱하며
● 元氣弱하고顏色憔悴神經過敏하야短氣해지고
● 肺炎과肋膜에故障이나서熱이나고밤에잠못자며
● 술이나不消化物은조곰먹어도설사나고腹痛나며
● 大便에血液濃汁을混하야胃癌胃潰瘍腸結核等의疑心잇는症狀에는그예히아이후를服用하시라

아이후는胃腸病에對하야實로適切한 良藥이니、그主藥은腸胃內壁의潰瘍面又는糜爛面에附着하야炎症을鎭定하고粘膜을强壯케하야粘液의分泌을減하며腸의蠕動亢進을制御하고胃腸의弛緩을緊張하야下痢를막고痛症을鎭靜한다故로病源을治療하야迅速히急性慢性의胃腸病을快癒케하며또胃腸의機能을旺盛케하야食慾을增進하며營養의吸收를佳良케하야血色을加하고體重을增하야元氣와健康을顯著히增進한다

藥價 三服入二十錢·四日分七十五錢·八日分一圓五十錢 十七日分三圓·四十五日分七圓 特製十一日分五圓·二十三日分十圓

各地의有名한藥店에서販賣함

發賣本舖 順和商會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振替貯金口座大阪三四五番 電話(東)五〇〇〇·五〇〇一番
東京 東京市本鄕區駒込町九番地 電話(小石川)四〇一〇番 振替東京六二二八八番
大連 大連市山縣通一丁目 電話七六〇八番 振替大連三七六番

家庭

비증유의 물난리와 병자의응급치료

구토설사환자속출 우선 몸을 돌봅시다

조선의 보고(寶庫)인 三남지대를 엄습한 폭풍우는 이내 잇어 보지못한 큰 난리를 이르키어 참아 눈으로 보지못할 비참한 정경을 이르고 잇다는 것은 본보가 각각으로 호외로써 보도하는바와 같습니다. 기하에 울고잇는 수만 수십만의 생령은 떠나가는 집을 바라보며 울고잇는정은 물론 장마때의 불결(不潔)로 인하야 생기는 구토설사의 환자가 속출하고 잇다는 끔찍한 보도가 오고 잇습니다. 이때를 당하야 우리들이 지켜야할것은 무엇보다도 건강이니 장마가 지나간뒤면 더욱 무서운 전염병이 유행할 염려가 만흐니 가벼이 주의하여야겟습니다 먼저 [illegible] 복통이 생기고 따라서 여러가지 병에 [illegible] 이니 다음의 기사를 요량하야 이 장마기를 처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수원도립의원외과(水原道立醫院外科)장 김하식(金河植)박사가 이번에 주신 귀한원고입니다.

★ ★ ★

장마철에주의할 복=통=에=대=하=야

水原道立醫院外科 金河植 博士

복통(腹痛)은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사실이나 아무 장해없이 지나는 일도 잇으므로 너머도 경멸하는이이 만습니다 그러나 이 복통이란것은 그러케 업수이 여길수 없는것입니다 요사이 같이 장마가 심할 때에는 잠자리나 음식이 좋지못하야 아조 쉽게 생기는 것은 복통입니다 그러하야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생명(生命)과 직접관계가 잇는것이니 다시 말하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치료를 받지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잃게됩니다 이에 장마를 겪고계신 여러동포들에게 이 복통에 대한 주의 몇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복통만 아니라 일반으로 어떠케되어 생기며 어떠케 인식(認識)이 되는가 하는것을 간단히 말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통각이란것 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다아는바와같이 의식적경험(意識的經驗)이고 일종감각(感覺)이라고 말하는 정신현상(精神現象)의 하나이올시다. 이 감각의 정신현상은 우리 몸가운데 잇는 구심성신경(求心性神經)과 밀접한 관계가 잇습니다. 이 구심성신경은 우리몸 말초(末梢)에서 받는 자극(刺戟)을 중추신경(中樞神經)에 전달하는 신경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다는 자극은 구심성신경을 통(通)하여 중추신경에 전달하여 우리가 처음으로 아픈것을 알게됩니다.

또 아무 표장이 없는데도 아픈증이 생기는일도 잇습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위암(胃癌)은 왕왕 처음에는 아무 표장이 없는데도 복통이 오는일이 잇습니다. 맹장염(盲腸炎)을 일으킨 [illegible] 아무 표장이 없어 복통을 알으키는 [illegible] 복잡하고 [illegible] 복통에 대하야 간단히 [illegible] 말하겟습니다.

어떠한병에 복통이 생기는가? 예를들어 말하기 [illegible] 위(胃)나 장(腸)이 [illegible] 계속하야 아픈것의 여러가지 [illegible]

家庭常識

◎오점빼는법

6 기름이묻엇을때

1、각종닛세에는 휘발유로도 빠집니다. 빠지지만 그것은 광물성(鑛物性)기름이므로 그냥 두어도 좋습니다.

2、그래도빠지지않으면그것은 식물성(植物性)기름이므로 [illegible] 누든지 또는 [illegible] 비누[illegible] 잡니다.

복통의원인 이 되는 몇가지병

一、변비(便秘)

二、설사와위장가다루(下痢及胃腸加答兒)

三、신장병 혹은 간장결석증에오는 위부의통증(心臟病或 肝臟硬變症에오는 胃部鬱血)

四、맹장염(盲腸炎)

五、담석증과 급성담낭염(膽石症及急性膽囊炎)

六、화농성복막염(化膿性腹膜炎)

七、장폐색증(腸閉塞症)

八、감돈성탈장(嵌頓性脫腸)

九、자궁외임신파열(子宮外姙娠破裂)

十、위와십이지장궤양(胃及十二指腸潰瘍)

十一、위암(胃癌)

十二、척장염(脊腸炎)

十三、연중독(鉛中毒)

十四、간장암과 늑막염(肝臟癌及肋膜炎)

十五、신장결석증과 수뇨관결석증(腎臟結石症及輸尿管結石症)

十六、월경곤란증(月經困難症)

十七、나팔관염(喇叭管炎)

十八、횡격막하농양(橫隔膜下膿瘍)

十九、난소낭종과 경염전(卵巢囊腫經捻轉)

二十、위장관대이물(胃腸管內異物)

二十一、위장신경증(胃腸神經症)

이외에도 복통이 오는 병이 잇습니다 그러나 [illegible] 이상의 여러 병이 가장 많은 것이니 [illegible]

[illegible] 우리의 하상(?) [illegible] 장이 [illegible]

맹장염(盲腸炎)

흔히 맹장염이라고 하는 병명은 [illegible]

우리가정 여름물것退治法

鐵原 R生

파리로大법 천정에다가 [illegible] 파리약을 [illegible] 이가 파리를 [illegible] 그러면 [illegible] 파리약을 [illegible]

紙上病院

【問】금년十八세된 소녀 [illegible] 경도 [illegible]

1、원인

2、자세한치료법

3、주의하게되면

4、아경따의관계 (江生)

【答】결막염의 원인은 여러가지 [illegible]

【問】관시(亂視)가무엇 [illegible]

(赤十字病院 眼科 長高永穆氏)

【問】관시라 하는것은 [illegible] (飮茶兒)

【答】[illegible]

어린이

동화극

쥐와고양이 (一幕) (三)

李 구 조

◇나올사람◇

쥐일곱

쥐一(알룩이) 열네살

쥐二(의뭉이) 열세살

쥐三(시롱이) 열두살

이밖에도 만히 고양이 열네살

◇무대◇

시골 농사집 광 한방 [illegible] 큰독, 항아리, 곡식단지들이 어수선하게 널려잇다 [illegible] 회회 [illegible] 나온다

쥐二 (독뒤에 숨어잇다가 나오면) 에요 [illegible]

쥐一 (독뒤에 숨엇다가 나오며) 거긔 [illegible] 낫잠 [illegible]

쥐二 (숨는다)

쥐一 나야나 [illegible]

쥐二 (숨엇다 나오며) [illegible]

日記 學生

七月十五日 晴 (日)

[illegible] 五女 [illegible]

어제 여러동무와 함께 [illegible]

七月十七日 晴 (火)

[illegible]

京城保育同窓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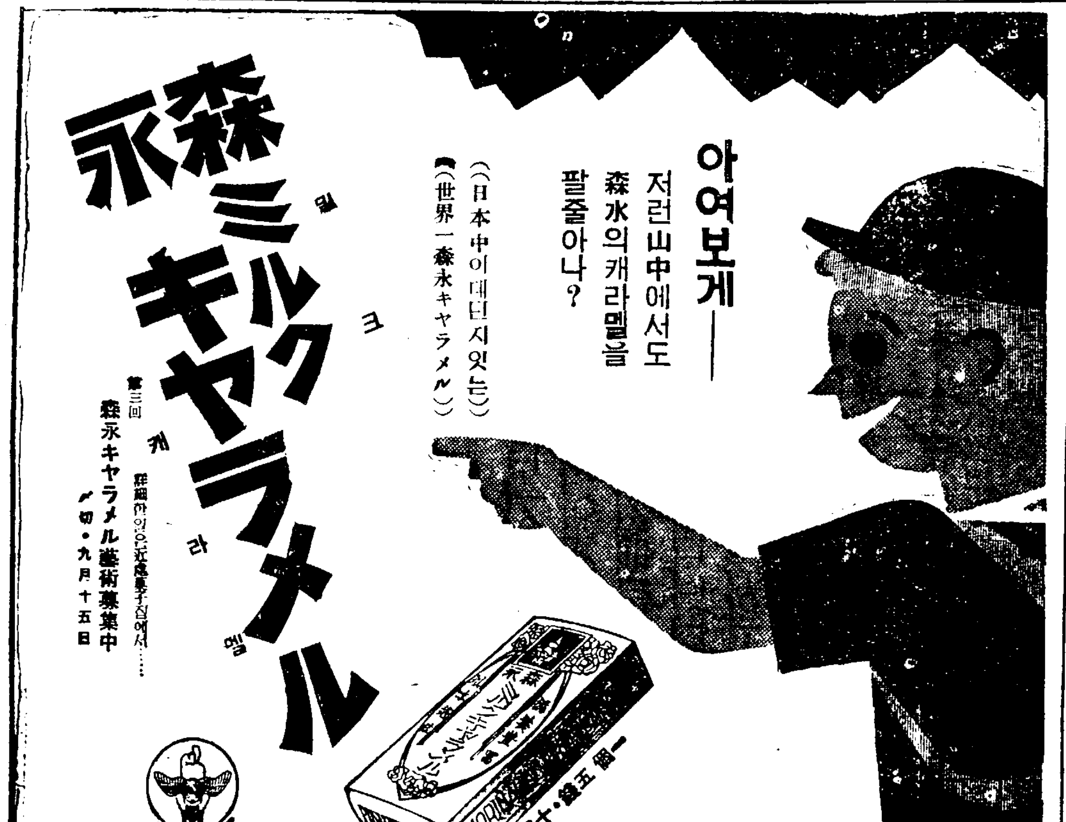
二十七日午後四時에

경성보육학교 졸업생 동창회는 오는 二十七일 (金) 오후四시에 동교 [illegible]

朝鮮保育協會

定期總會開催

조선보육협회에서는 지금 [illegible] 대명二十六일(木)오후 三시반에 [illegible] 개최하기로 되엇는데 회원은 [illegible]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國產愛國 ミシン五十名 無送代呈
月掛豫約販賣宣傳大奉仕!
贈呈總額 五千圓 (規定)
愛國ミシン合資會社宣傳部
東京市板橋區小竹町二三七六

皮膚泌尿花柳病
醫學博士 渡邊晉
京城黃金町入口日本生命館

鑛山用品
谷口合資會社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番)
七月廿四日부터三日間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大喜劇 質屋 全一篇
名篇 島の娘 全十卷
明日의結婚 全八卷

朝鮮劇場 (電光一二八一番)
◇七月二十四日부터◇
岐路 全三幕
問題의一分間 全一幕

桃花劇場 (電光)
◇七月二十五日부터特別大公開
憧憬의杏 全八卷
海의王者 全八卷
戀의市丸 全八卷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木浦訪問大公演
◇第一日프로 ◇第二日프로 ◇第三日프로 ◇第四日프로 ◇第五日프로

無上之光榮
피부병에 6½0 六一○합표
家庭湯治藥 行水에最適宜

라디오
極東無線商會 宋憲秀 電光二七四二番

東亞日報內資洞購讀請求所 (光一○三三)

山崎寫眞機店 寫眞機械及材料

製麵機

우리옷감 태극성광목

왜분꽃에 グリコ와 똑같은 빛깔이잇다

猪印 のみとり粉
日本產業最高章 綠綬褒章 御下賜
파리、벼룩、빈대는대번에죽어!
누구던지잡가가떠재미잇는
여름의家庭遊戲입니다
사실때에는반드시 猪印이라指定하시옵

淋疾의劃紀的局所新藥

ブラオンギン(뿌라온銀)

ゲンゴール(겐골)

淋疾의 內服的殺菌力에對한 獨逸슈라인、 발렌친博士의學說

獨逸의碩學슈라인博士(Stein) 발렌친博士(Valentine)는內服藥에關한論文中「白檀油、빨삼等의內服藥을連用하는患者의尿中에는淋菌의 繁殖을防止할 힘이없다」고斷言하고、다시現代臨床醫家는「에레르油、빨삼劑에는殺菌力이皆無오單히鎭痛、分泌制限、利尿作用을가젓음에不過한다」고極言하엿다。게다가腎臟胃腸障害를伴隨하며또慢性性移行의機會를주는內服藥其他에失望한現代醫學界에서 淋疾의治療率은適切한局所銀劑에依한治療方法이가장良好하다고하게되엿다、卽가장合理的인局所銀劑는殺菌力이强하고、尿道內에서蛋白과結合하야効力을削減할念慮없고、그奏効가著明한것은治療經過中의局所所見에徵하야明白히알어볼수잇는바이다。

淋疾治療에ブラオン銀(뿌라온銀)의絶對威力

前東京吉原遊廓吉原病院長 佐藤榮先生發見創製

淋疾治療期間의短縮ブラオン銀의効果優秀

一、本劑는前東京吉原病院長으로十數年在任하시든佐藤榮先生이、多年의[illegible]과學理에基하야가장合理的實效的으로完成發表하신局所的銀劑인데[illegible]家가다가大[illegible]하는局所的銀劑로서의三作用을兼有하고、[illegible]에對하야는、또[illegible]博士의[illegible]하고다시臨床醫家의主要에合致한[illegible]이니、本劑의主成分「ブラオン」[illegible]에서[illegible]하는바[illegible]가[illegible]한可溶性「알부민」으로[illegible]하기에成功한것이며、그[illegible]의强力作用에다가[illegible]作用에定評이잇는[illegible]合理的으로配合하야、一層[illegible]完成한것이므로그[illegible]作用이[illegible]하고、[illegible]의早期[illegible]으로[illegible]期間의[illegible]는點은本劑의가장特徵이되는바이다

二、本劑는[illegible]의[illegible]이어서[illegible]、[illegible]、[illegible]等의[illegible]에比하야[illegible]하고主成分의分子가[illegible]히微細하므로그特有한消炎[illegible]作用은[illegible]內粘膜[illegible]等의[illegible]部의[illegible]에[illegible]하야所期의目的[illegible]成의作用을가진것이며、게다가[illegible]作用、併發症의念慮없이가장安全히治療의目的을[illegible]할수잇다

三、本劑는殺菌力이强하지마는刺戟性이微弱하므로[illegible]히濃厚한채로使用할수잇고、그때문에〇、五乃至〇、七瓦의極少量(卽尿道粘膜에塗布하는程度)로充分히作用하고、[illegible]함을따라淋菌과[illegible]球의[illegible]的으로[illegible]하야가장有効하게目的을[illegible]할수잇는故로、多量의使用을[illegible]하는洗滌藥과갈이[illegible]에淋菌을[illegible]尿道에送入하야副睾丸炎、[illegible]炎等의併發症의危險이없고、도리혀이것을防止하는作用은가장本劑의[illegible]을[illegible]하는바이다。

臨床醫家에게告함

[illegible]社研究所는[illegible]하고자하야[illegible]界의[illegible]을[illegible]하야[illegible]、아니[illegible]하야[illegible]하자고努力하고잇다。

多幸히大方醫家의[illegible]와[illegible]을[illegible]하야[illegible]本劑에對한研究[illegible]이는것은[illegible]不[illegible]는바이다。

[illegible]社研究所는[illegible]의可能함에[illegible]하야本[illegible]法에對한[illegible]家의試驗을[illegible]하오며또臨床醫家[illegible]의再考[illegible]하야[illegible]한批評을기다리는바이다。

新發賣

試藥品 急性症 慢性症 一圓九十錢 (塗布用錠劑 其他附屬品付)

從來의局所銀劑에 求할수없는、治療經過의早期良轉及治療期間의短縮이特徵이오、使用이甚히簡易便利한本劑를、아직實驗못한各位의簡易한試療에도움이되자고特히低價인試藥品을提供하야널리本劑의性能効果의 眞價認識을꾀함

—藥價—

二〇瓦入(約十四日量) 三圓八十錢
五〇瓦入(約三十五日量) 七圓
八〇瓦入(約五十七日量) 十圓
送料(內地 十五錢 外地 四十二錢)

壹號、急性症에適宜。貳號、慢性症에適宜。參號、婦人用에適宜。藥價는다同一하지만藥液中原液의含有量其他에相違가잇으니注文時에明記하시옵

東京市芝區三田[illegible]町十三番地 電話三田 一六八五 一六八六
東京振替三一九四三 [illegible]三田第十五號
日東製藥合名會社

京城 [illegible]藥房
京城 木村藥局
釜山 大[illegible]商[illegible]堂

于先文獻에依하야本劑의性能과實驗成績報告等을아시랴거든發賣元에葉書로申込次第送呈

四十年前에 진안해, 七十老翁이 搜索願

나이늙을수록 생각은 더간절 平壤警察에 넌센스劇

【평양】 나이 七十五개를 넘어 세상을 하직할 날이 가까워올수록 세상사람들게 그리운것이 四十년전에 다라난 안해라 죽기전에 한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인생을 흘러 끄도 오히려 미진한 눈물을 흘리는 무렵우에 죽음이 흘러가면서 애소한 노인이 잇엇다.

이 이정비극은 二十二일 아침 평양시 인사상담소에서 전개된것이다.

대동군 남형제산면 청호리(大同郡 南兄弟山面 淸湖里) 장치한(張致翰)노인은 四十一년전 안정천정당시 평양一대에 풍운이 앓어났을때에 … 피난가는 보퉁이 … 안해 김씨(金氏)(그녀七十五세)는 청부를 따라 새다른 보찌을주며 남편을 떼어 버리고 나간후 돌아오지 않엇다고 한다.

호소하는 장씨는 지금까지 찾을수없는것이 여 다라난 조강지처라 四十년을 두고 四면八방으로 수소문을 하여왓는데 최근에 이르러 당시에 종적을 감추고 풍파하든 유체를 … 김씨도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어 부내 서문밖(西門外) 어디서 산다는 소식을 듣고 죽기전에 단 한번이라도 좋으니 만나 보도록 찾아달라고 평양서에 호소해온것이라 한다.

평양서에서는 하도 어이가 없어 수색원을 듣고도 하회를 … 버리 이노인의 소원은 … 지않다.

… 이야이가 아니가 하다.

滿朔된 酌婦를 毆打하야 流産

배를차고 끄봉으로 따리 加害者檢事取調中

【장진】 지난 二十일 오전七시 三十분경 함남장진군 신남면하갈시(下碣市)에서는 만삭된 작부의 배를 포주가 발길로 차고 끄봉으로 난타하야 아이를 유산시킨후 사체를 변소에 암장하엿다가 하갈서에 발각되어 범인을 즉시 체포하여다가 엄중한 취조를 하고 잇다한다.

어제 그내용을 알어보건대 본적을 전북 김제군 죽산면 죽산리(金堤郡 竹山面 竹山里)에 둔 최영애(崔永愛)(二○)는 충남논산군 강경읍 대화정(論山郡 江景邑 大和町)으로주거에 작가잇으며 부근 … 에잇는 강모(姜某)라는 남자와 정을 통하야 잇엇는데 금년 음二월초순경 함남장진군 상남면 장평리(長津郡 上南面 倉坪里)음식점 박형원(朴亨元)집에 왓다가 또 그곳도 오래잇지 못하게 되어 지난 음 五월 초八일 신남면하갈시(新南面下碣市) 음식점업 김기학(金基花)집에 채금 一백八十원을지고 잇으나 배는 점점 불러가고 피로운 몸으로 술을 따르고 나오지않는 웃음과 노래를 부르며 손님을 대하고 잇는데 주인은 잘못한다고 종종 책망과 구타를 하여오든중 지난 十六일 오전五 …

野原의 別莊 惠山郊外의 참외막

奉天在留同胞들이 共榮會를 組織

◇…근검저축을목적하고 廿二日에 創立總會

【봉천】 수十년동안 봉천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근검 저축하야 생활향상을 도모하며 상호부조하야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발기고저 조선인공영회(朝鮮人共榮會)를 발기하고 저간 누차회합을 거듭하야 회원을 모집하며 협력을 청하고저 활동하여오든바 지난 二十二일 오후 七시에 수청(壽町) 만철구락부(滿鐵俱樂部)에서 三백여명이 모여 이한(李漢)씨의 사회로 창립총회를 개회하엿다는데 이제 경과 상황 보고와 강령선언(綱領宣言)규약토의 인원선정등을 진행하야 만장一치로 가결하고 동 十시에 폐회하엿다는데 강령과 임원은 아래와 같다.

◇강령
一、朝鮮人의 …
一、勤儉貯蓄 …

◇任員
會長 …▲副會長…▲
總務… ▲貯…

田穀狼狽뒤이어 米作에도 悲聞

◇장마로인하여벼가썩어 咸州郡下農況凶作

【함흥】 함남함주(咸州)지방에는 오랫동안 장마와 음천으로 속농(粟農)은 전멸상태에 이르럿다함은 누차보도한바이어니와 아직답작은 계속되는중으로 가장기대하든 도작(稻作)도 심히 우려할 상태에 빠젓다는바 기후가 불순하면 저 그피해가 적지않은 부양으로 뵈어먼저 그곳에서 썩어넘어지고 … 보게되리라한다.

在滿同胞의 教育機關擴張

【안동현】 만주사변후 조선인 보통학교가 六교에 불과하든바 사변이 잇은후 안봉연선 신흥학교(新興學校)와 봉황성(鳳凰城) … 교가 새로 건축됨에 따라 …

安東縣雄辯會

申請期日延期

【안동현】 안동현 조선인 청년회 민예부 주최와 안동조선인 신문기자단 후원으로 조만한 웅변대회를 八월一일부터 三일간 안동공회당에서 개최한다는바 신청기일이 二十五일까지로 되엇든것을 각지 연사들이 기일의 연기를 여 달라는 청으로 범서 수十명이 신청한것을 불구하고 유감이 없도록 특별히 二十八일까지 신청기일을 연기하엿다 한다.

馬鈴薯暴落

【함흥】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는판계로 함남함주(咸州)지방에는 마령서(馬鈴薯)도 전년의 약四할감수나 되엇다는바 썩잖은 예년의 곱이나 올은 반면에 갑시는 한없이 떨어지게 라는 놀랄만치 헐가로 떨어저 생로 생산비에도 밑이지못하야 농가에서는 더더한 손해를 받고 잇다한다.

少女가 溺死

【평강】 지난 二十二일 오전 十一시경 평강군 서부리 (洪川郡西部里) 손대구(孫大九)(九)의 딸이 … 강서(龍岡) …에 빠저 사망하엿다는데 급보를 접한 용강서(龍岡署)에서는 급행하야 역할 대동하고 현장에 가 시체를 검시한후 가족에게 인도하야 매장케하엿다는데 원인은 물놀이하러 갓다가 빠진것이라 한다.

【평양】 … 十二명은 안동시(安東市) … 지난二十一일 오전九시경에 본보안동지국(本報安東支局)에 도착하야 지국장(支局長)의 안내로 박천수리조합 영천수리조합사(東亞東亞東拓會社)를 견학하고 봉천교외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후 十二시에 영변(寧邊)을 향하여 출발하엿다 금번여행의 목적은 하며 도부지국에서 여행의 단련하고 명산고적(名山古蹟)을 탐사하야 동식광(動植物)등의 표본을 채집하야 농민생활의 실지를 연구하려는것이라하며 여행의 일정은 十五일간이라 한다.

一面에 二校

南倉公普開校式

【대판】 평북 삭주군 외남면대안동(朔州郡外南面大安洞)남창공립보통학교(南倉公普校)는 지난 二十일오후에 인가되어 오는 三十일에는 동학교내에서 개교식을 거행하리라는데 一반교계 발전을 위하야 성대히 준비중이라한다. 동면에는 대안보통학교(大安公普校)와 동남보통학교 이二교가 설립되엇다 한다.

濱地洞에 長霖

【지지동】 … 용강(龍岡) 一대에는 장마비가 一개월 가량이나 계속하야 농작물의 피해가 많은중 대맥과 소맥을 베고 경작하는시기를 놓쳐 팥과 메물등의 … 되엇다한다.

滿洲智識講座

哈爾賓서 開催

【합빈】 최근 합이빈(哈爾賓)의 조선인구는 날마다 증가하여 상업성수 호료보여잇으나 그들의 대개는 거진 부면주에 대한 상식 인식과 주로 거진하야 … 로 그 사업과 경험에 크지 못하므로 그 사업과 경험에 … 장이 드키고 검하야 실패를 만이 보게되는 경향이 보이므로 당지 협조회(協助會)와 대중교선도회(大衆敎善道會) 주최, 만몽이보사 본보 북만총지국(北滿總支局)과 후원으로 만주 지식(滿洲知識講座)을 당지보통학교강당에서 내八월一일부터 게속하여 연다하다. 강사는 … 북만에서는 조선사람의 누구에게 나 필요하고 적절한문제를 취급하는것이나 일찍이 로서아와 만주등지에서 종사하여 한글을 연구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여러사람에게 이번에 그기회를 주자하는 의미로써 특별이 한글강좌를 특설하엿다 주목함이라한다.

殺父한 吳天一에 無期役言渡

평양 지방법원에서 공판 被告는 控訴할모양

【평양지국전화】 세상에 제二세 이수학(李秀學)사건으로 그주의를 주목되고잇든 평양선교리(船橋里)가 은평에스(江西郡) 주인 오천일(吳天一)(三六)이 자기생부 오명보(吳明保)를 살해햇다는 살인피고사건은 평양지방법원에 심리가 계속 되다가 검사의 사형구형까지 잇엇던바 금二十四일오전 十一시에 소림(小林)재판장으로부터 무기징역의 언도 하엿다.

증거로는 四개월동안 평양서에 유치되어 취조를 받든중 처음에는 부인하고 중간에 一차 시인하고 마조막에 역시 사실부인하엿든 청조서중 시인하엿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나리운것이라 한다.

피고도 극력 범행을 부정하엿고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엿든만큼 공소할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오천일은 무기징역 판결언도에 대하야 항소를 제기하엿다는데 안정(검사)도 피고의 공소에 따라 부터 공소할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深夜의 太陽 (68)

金基鎭 作
李象範 畵

남이밝을때 【一】

이감이경계를 엄중하하고 잇을때 전문밖에서 사람이 달려와서 하사하게 지시한자이 달려와서 … 「지금, 청진(淸陣)에서 병정을 이러는 때에 경우호 노래에 이르러 한다 … 이 형세를 살피어보고 들어갓습니다.」 하든말을 하엿다. 서재에서 시 람하고잇든 서재필이 들어와서 장사로부터 바뀌보고를 김옥균에게 전하엿다.

「군사들을중에서 우리에게 갓가운 높으로 十여명을 대로하여야 가엿다가 틀어오는 재신(宰臣)들 이엇기든 박살이 명령하라」 선언하면 김옥균에게 우리에게 뜻하라고 즉시 달하게 시키게.」

김옥균은 가만히 서재필에게 명령하엿다. 청국병정들이 관청을 하고 들어가겠쇼하고 경비를 엄숙하하기 위해서이엇다.

그런지음에 미처, 대문밖에 무장하고 전에 장어연이 … 이조연이 들어왓다. 우정국에서 피란을 하여가지고, 창덕궁으로 갓가 대가가 경우궁으로 도파하신것을 알고 달리어온것 이엇다.

이조연은 상감께나아가 청할하도 제서 한규직의 거문로가서 무엇이라고 소곤소곤이야기를 하엿다. 한규직도 五개를 그랫거리면서 대답하고잇으며 유재현도 무시러기 드므로가서 무엇인지 속삭이엇다.

(오냐, 너희들이 청병(淸兵)을 끄러들이자는 의논을하는구나!—)

김옥균은 이길이 직각하고서 얼른머리를돌러 그들엇다. 그러고 눈짓 …을하엿다. 그랫든지 …

「지금 변란중에서 입번공사로하여금 병대를솔하고 오게하야 호위를 받으시는 형편인데 세분 선영대장(三營大將)은 장병의중 임을가지고서도 뒤리나가서 병대를입솔하고 들어오실생각을 하지아니하고, 시로얼굴들만 바라보면서 수군거리기만하고 잇으니 무슨까닭이오?」

하고, 엄중하게 꾸짓하엿다. 그를의 위는 지금이자리에잇는 자만 한 사람의 보국대신이다. 그의말은 지극히 권위가 잇는 것이엇다. 그러자 윤태준이,

「시생이 먼저나아가서 군사들을 인솔하고 들어오겟읍니다.」

하고, 먼저 물러나려로 내려갓다

洪川夏期運動競技大會

◇日時 七月二十七、八日、八月五日
◇場所 公立普通學校運動場、公立淑女學校
◇申請 七月二十五日까지, 陸上은二十一日까지
◇種目 籠球、庭球、蹴球、陸上競技
◇主催 洪川體育俱樂部
◇後援 東亞、朝鮮兩支局

南朝鮮蹴球大會

◇日時 八月五日午前九時
◇場所 鶴山、貴珠山그라운드
◇參加金 貳圓也(中食券付)
◇賞品 優勝旗(四拾圓價格)副賞
◇主催 鶴山體育會
◇後援 朝鮮、東亞兩支局

第三回 南朝鮮個人庭球大會

◇日時 八月五日(雨天順延)
◇場所 唐津郡廳코—트
◇申請金 五十錢
◇主催 在京唐津學友會
◇後援 東亞日報社唐津支局

第一回 中朝鮮蹴球大會

◇日時 七月二十五、二十六兩日間
◇場所 利川普通學校그라운드
◇主催 利川靑年團
◇後援 東亞日報利川支局

朝滿男女懸賞雄辯大會

◇日時 八月一二三日間午後七時
◇場所 滿鐵公會堂
◇申請場所 安東靑年會 安東朝鮮人靑年會
◇賞品 一等純金메달(三十圓價)五等까지
◇主催 修養中心 安東朝鮮人 靑年會支部
◇後援 安東縣 朝鮮人 新聞記者團

第九回 全朝鮮庭球大會

◇時日 七月三十一日午前九時부터(雨天順延)
◇場所 宣川明新學校코—트
◇申請 七月三十日午後四時까지
◇參加 靑年團 三組 씩
◇參加金 每團體金三圓(申請파同時)
◇主催 宣川基督敎靑年會
◇後援 東亞日報社宣川支局

胃腸의 粘膜도 保護와 鍛鍊이 必要

그見地로의 새로운 胃腸療法

胃腸은人體의부엇으로그內部는 … 에 … 外界에接합니다 … 體表面에잇는皮膚와같이 … 胃腸粘膜은食物에對하야 … 反應하면서 … 합니다.

體表面에잇는皮膚

消化에關한다는것

… 消化作用을援助하는 …

便秘의 新食餌療法

쯔—레의色彩論에서생각 해낸冷食과溫食의應用

便秘의治療에는 食餌上의作戰가 重要하나, 그는食物의成分과 … 效果를 엇을수가잇습니다.

無用物質의排泄

消化

成分

… [illegible]

乳兒의消化不良

… [illegible]

肋膜炎에서 救濟되기까지

療病手記

(寄稿) 永田澄江

… [illegible]

◇食慾 …

(中略)

…

異常

… [illegible]

無代 … 醫者の來る迄 … 全國藥店에서 …